

# 아내폭력의 실태와 관련변인들\*

- 충남 서산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 The Current State of Wife Abuse and Related Variables in Seosan City, Chungnam Province\*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이종원

교수 옥선화

강사 남영주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Doctoral Student* : Lee, Jongwon

*Professor* : Ok, Sun Wha

*Lecturer* : Nam, Youngjoo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아내폭력 실태와 관련변인들 |             |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wife abuse in Seosan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wife abuse and the related variables.

A total of 132 couples took part in this study. All couples live in Seosan city, range in age from their 20s to 50s and each couple has at least one child. Stratification sampling method was used to select the couples. They were asked to complete self-report questionnaires. Subjects completed a Korean version of the self-esteem scale, marital conflict scale, communication style scale, family history of violence scale, alcohol drinking, and wife abuse scale.

In order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wife abuse, such as,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and paired t-test, t-test were calculated and analyzed. Next, to identify differences in wife abuse between the upper

Corresponding Author: Jongwon Lee,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San 56-1 Sillim-dong, Kwanak-gu, Seoul 151-742, Korea Tel: 82-880-8770 Fax: 82-880-8770 E-mail: ensory@yahoo.co.kr

\* 이 논문은 2005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group and the lower group, t-test was performed. Finally, to investigate the relative influences of independent variables upon wife-abu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All these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PSS 10.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terms of the current state of wife abuse, there are three main observations. First, 23%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had beat their spouse or been beaten by their spouse before and after their marriage. Second, compared with physical violence(2~16%), other types of violence such as verbal(7~40%), emotional(41~64%), economical(3~29%) and sexual violence(4~38%) were reported to occur more often in these relationships. Third, following the abuse most wives tend to tolerate the situation instead of taking an active action like reporting the abuse to police. 2) As for the husbands, subjects that drank a high level of alcohol, blaming and super-reasonable communication style, and family history of violence reported more frequent cases of wife abuse. As for the wives, subjects with high levels of self-esteem, irrelevant communication style, marital conflict, and family history of violence reported having more cases of that abuse. 3) In the case of husbands, alcohol, communication style and family history of violence explained 40% of wife abuse. In the case of wives, marital conflict and family history of violence explained 77% of their experiences with abuse.

This study makes the contribution to aims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and family therapy relevant to prevent wife abuse and to reconsider the existing laws governing domestic violence in Korea.

**주제어(Key Words):**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의사소통 유형(communication style),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경험(family history of violence), 아내폭력(wife abuse)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도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내 폭력을 그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라고 여겨 가정 외적인 개입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기피의 원인으로는 가장인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는 가부장에 대한 존중의식과 유교적인 남존여비 사상, 여필종부 사상 등에 연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까닭으로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불과 20여년전부터이며, 1998년 7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일부 학자와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전보다 활발하게 아내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관련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은 그 수도 적고, 다각적인 관련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아내 폭력은 위와 같은 이유로 다른 범죄에 비해 가정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

며, 가정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모방과 학습을 통하여 세대간에 걸쳐 악순환 되기도 한다. 또한 사회의 미시체계인 가정에서부터 발생한 폭력관련 문제들이 가정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 전반에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아내 폭력 방지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 작업은 먼저 각 지역의 아내 폭력 실태를 파악하여 그 지역의 실태에 가장 적합한 지원체계에 필요한 기초 자료들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내 폭력방지와 관련된 상담, 교육 프로그램, 정책적인 지원체계를 개발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는 후속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연구인 이 연구는 지역특성별 정책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발견을 위한 필요성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아내 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선행 연구에서 그 관련성이 논의되어 왔던 관련 변인들과 아내 폭력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아내 폭력 관련 상담이나 폭력 예방교육, 치료 프로그램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아내폭력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정신병리이론(정현숙, 유계숙, 2004)

남편들의 경우 염색체 이상, 선천적인 뇌손상,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인한 공격성 증가, 분노조절력의 부족, 성격적 결함, 알코올이나 약물 의존 등이, 구타 받는 아내들의 경우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성격의 소유자이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여성, 불안감으로 가득 찬 여성,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여성들처럼 정신적·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생물학적·유전적 요인으로 인하여 부부폭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2) 좌절-공격 이론

인간의 목표추구가 좌절되었을 때 욕구불만의 결과로 폭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가 용인하는 방식으로 욕구불만을 해소하지만, 일부는 욕구불만을 가까운 아내나 자녀에게 폭력 행사로 해소한다고 이로 인하여 부부폭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3) 사회학습 이론

성장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관찰 학습한 아동은 어른이 되어서도 부부폭력의 가해자가 됨으로써 폭력이 세대간 전달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아동이 가족, 하위 문화, 매체 등을 통해서 폭력을 많이 보거나 피해자가 될 수록 성인이 되어서 더 많은 폭력을 수행하게 된다고 보았으며, 부모의 체벌 사용은 또 다른 상황에서의 무력 사용에 강한 모델이 되어 역할 모델이 자신과 동일시가 이루어졌을 때 그 모델의 공격성을 더 잘 모방하게 된다고 보았다.

4) 교환 이론

폭력의 가해자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응당의 보상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교환법칙의 상호성 규범에 입각하여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 시킨다고 본다.

5) 갈등 이론

부부가 서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주도권 다툼을

벌이거나 배우자간의 태도, 가치관, 성격 등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러한 갈등의 산물로서 폭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6) 사회구조적·사회문화적 이론

부부폭력의 발생 원인을 가해자나 피해자의 개인적 상황보다 그들이 속한 사회 구조와 문화에서 원인을 찾는다. 문화이론에 의하면 긴장이나 좌절의 결과로 발생하거나 갈등을 해소하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부부폭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7) 마르크스주의 이론

부부폭력의 근본원인은 사회의 불평등, 비민주적 사회 구조, 계층간의 이동의 경직성, 경제적 빈곤과 불안정한 삶에 있으며, 이러한 사회 구조에서 발생된 좌절과 절망감이 가정생활에 전가되어 부부폭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8) 여권주의 이론

부부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가부장적인 문화와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에서 찾는다. 여성이 남성의 권위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가부장적 관념 속에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며, 남편이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내를 구타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9) 생태체계이론(김정란, 김정신, 2003)

가족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심리적, 문화적인 환경들과의 역동적 상호관계에 역점을 두고 개인, 환경, 사회문화적 요소들에 기반한 다차원적 현상으로 폭력을 개념화하고 접근하는 입장이다. Belsky(1980)는 생태체계를 각각의 동심원을 형성하는 네 가지 수준으로 생태체계적 분석틀을 이용하여 아내폭력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가장 중심에 있는 원은 개인적 수준으로써 개인의 행동, 성장경험, 성격특성 등 개인의 사적 요소를 나타낸다. 다음 원은 가족 수준으로 개인이 직접 관계를 형성하는 부부 및 가족 역동성을 나타낸다. 세 번째 수준인 사회구조적 수준은 직장, 이웃, 사회적 관계망, 모임 등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사회제도나 사회구조

를 포함한다. 네 번째 사회문화적 수준은 전반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일반적인 관점이나 태도를 나타낸다.

아내폭력의 원인을 설명하는 상기의 여러 이론들 중 남편과 아내의 개인적인 요인과 부부의 관계적인 요인들이 가족 미시체계 특히 부부 하위체계에서의 아내폭력을 설명하는 데 그 설명력이 높을 것으로 보아 정신병리이론, 사회학습이론과 갈등이론, 생태체계이론에 중점을 두고 여러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연구의 변수들을 선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아내 폭력의 실태 파악과, 선행 연구에서 그 관련성이 논의되어 왔던 관련 변인들과 아내 폭력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하여 아내 폭력 관련 상담이나 폭력 예방교육, 치료 프로그램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므로 개입 및 중재를 통해 변화가 가능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선별하였다.

### 3. 아내폭력 관련 선행연구들

아내폭력과 관련한 여러 선행연구들 중 아내의 자아 존중감과 아내폭력 관련 연구에 의하면, 남편의 구타빈도가 많고, 구타정도가 심할수록, 그리고 구타기간이 길수록 아내의 자아 존중감은 낮고, 자아기능도 많은 손상을 입는다고 하였으며(김광일, 문경서, 1994), 남편의 구타를 받아온 아내들은 낮은 자아 존중감과 무기력, 부정적 자아상, 절망상태 등의 정신적·심리적 특징을 보인다(김광일, 1985; 박재신, 1992; Ball & Wyman, 1978; Hilbermann, 1980)고 하였다.

이러한 아내 폭력은 폭력행위 그 자체만으로 분리되거나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부 상호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며(Infante, Chandler, & Rudd, 1989), 아내 폭력의 대부분이 가족 간 상호역동에서 적절하지 않은 역기능적인 대처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atir, 1978). 즉 역기능적 유형에 속하는 산만형의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남편일수록 아내에게 신체적 폭력을 많이 사용하며, 비난형의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아내일수록 남편에게 심리적 공격을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득성, 김정옥, 송정아, 2000).

또한, 아내 폭력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학습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알려져 왔다(Hiberman, 1980; Scott, 1974; Straus, 1978; Walker, 1978).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가정폭력의 노출경험이 아내 폭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미약하며, 이 경험 이외에 아내학대에 대한 태도, 반사회적 성격특성 등의 다른 매개변인들의 영향이 더욱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들(Stith et al., 2000; Tontodonato & Crew, 1992)도 있지만, 국내 연구들(공미혜, 1993; 김광일, 1992; 송정아, 2000; 안영희, 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허남순, 1993)에서는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많을수록 아내 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다른 아내 폭력 관련 요인으로 알코올과 아내 폭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배우자가 피해자를 구타하는 가장 큰 이유로 특별한 이유 없이 술만 마시면 구타하는 경우(28.1%)가 가장 많았다(정민자, 엄선필, 2002; 한국가정폭력상담소 춘천지부, 2000)고 하거나, 음주 정도가 심해질수록 아내 폭력율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김재엽, 1998)고 하며, Straus의 연구에서도 알코올 사용과 아내 구타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김재엽, 1998 재인용)고 한다. 그러나, 알코올과 관련하여서는 아내 구타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자기 행위에 대한 구실을 위한 수단으로 알코올을 이용한다는 보고도 있다(Shin, 1995).

아내 폭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또 다른 변인인 부부 갈등과 아내 폭력과의 관계에 관한 김재엽의 연구(1998)에 의하면, 남성우위형인 가정의 경우 권력분리형이나 여성 우위형, 평등형의 가정에서보다 부부의 갈등 수준이 높을 때 갈등에 대해 폭력적인 반응을 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Mckenry 등(1995)도 가정 폭력이 부부간 친밀감의 변화, 부부 갈등, 결혼 만족 등의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부부 갈등과 아내 폭력에 관련된 연구들을 볼 때 부부 갈등의 여러 차원들 즉 성격차이, 성생활과 대화, 남편의 나쁜 습관, 가정 경제문제, 자녀지도, 배우자 원가족과 자신과의 관계, 자기 원가족과 배우자와의 관계 등과 아내 폭력과의 관련성을 조망한 연구는 소수이기에 부부 갈등과 관련하여서는 좀 더 구체적인 변인을 규명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부 갈등을 상기한 여러 영역의 변인으로 나누고, 이들과 아내 폭력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고찰하였다.

한편, 아내폭력을 다룬 국내 다수의 연구들은 주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신체적인 폭력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폭력의 범주가 다차원적이지 못하고, 무시, 냉대, 무관심 등도 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 연구(정서영, 1995)에 의하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부부는 44.9%인데, 이보다 성적, 정서적, 경제적, 언어적 폭력 등의 비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부부가 78.1%로 더욱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폭력을 다차원적으로 조망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남편이 자신의 물리적 힘이나 가족 내의 권력 및 위치를 이용하여 아내에게 신체적, 성적, 언어적, 경제적, 정서적인 폭력과 방임 및 무관심을 행사하는 것'으로 아내 폭력을 정의하고, 아내폭력을 신체 폭력, 정서 폭력, 언어 폭력, 성 폭력, 경제 폭력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 결과와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종속변인 아내 폭력과 이와 관련한 독립변인들로 남편과 부인의 자아 존중감, 의사소통 유형, 부부 갈등,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경험, 음주 빈도와 주량(이하 알코올 지수로 표기) 등을 선정하였고, 이들 변인들과 부부들이 지각한 아내 폭력과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선행연구들 중 원가족 폭력경험에 있어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한경혜, 김영희, 1999 재인용; Campbell & Humphrey, 1984)과 부부갈등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의 차이가 있음이 국내연구들(정문자, 이종원, 2003; 최규련, 1994; 한미향, 1999)에서도 보고되었고,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인에 있어 남편과 아내의 차이가 있는지를 paired t-test를 통해 살펴본 결과 독립변인 중 부부갈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독립 변인들의 아내폭력에 대한 영향력에 대하여 남편과 아내의 자료를 각각 분석하였다.

#### 4. 연구 문제

- 1) 부부들이 지각한 아내 폭력의 실태는 어떠한가?
- 2)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유형특성,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 경험, 부부갈등, 알코올 지수의 각각의

점수를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집단을 나누었을 때, 집단 간에 아내 폭력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3)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유형특성,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 경험, 부부갈등, 알코올 지수가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거주하는 서산은 우리나라 중서부에 위치한 인구 15만의 소도시이다. 2003년 3월 50쌍에게 실시한 예비조사를 거쳐 질문지 문항을 일부 수정하였다. 본조사는 2003년 6월에 서산 시내 모든 동의 중소형 아파트를 다단계 무선층화표집방법에 의하여 4곳을 표집하여, 20세 이상의 부부 200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5명의 조사원들을 교육하여 설문지 배포와 수거를 하도록 했으며, 총 140쌍의 자료가 수집되어 수거율은 70%이다. 이들 자료 중 일부 응답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총 132쌍의 자료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로 측정하였다.

### 2. 측정도구

#### 1) 자아 존중감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검사로 자기존중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이며 전병제(1974)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10점~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71이었다.

#### 2) 의사소통 유형 특성

유희정(1999)의 의사소통 도구를 참조하여 문항의 일부를 수정하고 여기에 일치형과 관련한 문항을 첨가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이 도구는 5개 의사소통 유형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유형별로 11개씩 총 55문

항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계산하여 각 유형별로 점수의 범위는 11점에서 55점까지이며, 각 유형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유형의 경향이 스트레스 상황시에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한다. 회유형은 2, 4, 6, 10, 13, 16, 23, 26, 28, 34, 36번이며, 비난형은 7, 8, 11, 21, 25, 27, 29, 30, 35, 37, 39번이다. 초이성형은 3, 9, 14, 17, 31, 33, 40, 42, 44, 46, 48번이며, 산만형은 1, 5, 12, 15, 18, 20, 22, 24, 32, 41, 50번, 일치형은 19, 38, 43, 45, 47, 49, 51, 52, 53, 54, 55번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사소통 유형 특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회유형 관련문항 .83, 비난형 관련문항 .83, 초이성형 관련문항 .77, 산만형 관련문항 .85, 일치형 관련문항 .81이었으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4였다.

### 3) 부부 갈등

부부 갈등은 '부부의 갈등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것으로 최규련(1994)의 부부 갈등 척도를 사용하였다. 최규련의 도구에서는 남편용 총 38문항, 부인용 총 39문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통적인 문항이 아닌 남편용 1문항과 부인용 2문항을 제외하였고, 남편용과 부인용 모두 각각 37문항을 유사한 범주는 공통영역으로 단일하게 묶어 사용하였다.

각 7개 하위영역별 문항을 살펴보면,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 관련문항은 8문항(1번~8번)으로 신뢰도 계수는 .92였다. 성생활 및 대화문제로 인한 갈등과 관련된 문항은 10문항(9번~18번)으로 신뢰도 계수는 .93이다. 배우자 원가족과의 관계로 인한 갈등과 관련된 문항은 4문항(19번~22번)으로 신뢰도 계수는 .87이었다. 자기 원가족과 배우자와의관계로 인한 갈등과 관련된 문항은 3문항(23번~25번)으로 신뢰도 계수는 .84였다. 가정 경제문제로 인한 갈등 관련 문항은 3문항(26번~28번)으로 신뢰도 계수는 .83이었다. 남편의 나쁜 습관으로 인한 갈등과 관련되는 문항은 5문항(29번~33번)으로 신뢰도 계수는 .89였다. 자녀 지도로 인한 갈등과 관련되는 문항은 4문항(34번~37번)으로

신뢰도 계수는 .82였다. 부부갈등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7이었다.

### 4)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 경험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 경험에 관한 측정도구는 부부가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이전 자기 원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신체적, 언어 정서적, 경제적 측면의 폭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고안하였다. 이 척도는 전문가 2명의 안면타당도와 예비조사시 대상자들에게 질문을 거쳐 수정하여 전체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6점 Likert 척도이다. '전혀 없었다(1점)', '1년에 1-2회 이상(2점)', '6개월에 1-2회 이상(3점)', '3개월에 1-2회 이상(4점)', '한 달에 2-3회 이상(5점)', '거의 매일 있었다(6점)'로 점수의 범위는 7점~42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 폭력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해석한다.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 경험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85였다.

### 5) 알코올 지수

알코올 지수는 알코올 섭취 빈도와 섭취량을 알아보기 위해 2개의 문항으로 본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섭취 빈도 문항은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다(1점)', '한 달에 1번 이하(2점)', '한 달에 2번 정도(3점)', '일주일에 1번 정도(4점)', '일주일에 2-3번 정도(5점)', '일주일에 4번 이상(6점)', '거의 매일 마신다(7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섭취량 관련 문항은 '술을 전혀 하지 않는다(1점)', '각 각 종류별 마시는 잔으로 2잔 이하(2점)', '3잔-4잔 정도(3점)', '한 번에 5잔 이상 마심(4점)'으로 두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알코올 지수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 6) 부부 각자가 지각한 아내폭력

부부 각자가 지각한 아내폭력은 갈등대처유형척도(CTS)를 수정, 보완하여 만든 김병수(1999)의 척도에 무관심도 고차적인 폭력의 형태에 속하므로 언어, 가정 경제, 성적 무관심에 해당하는 문항 3개를 본 연구자가 더 첨가하였다. 이 도구는 과거 1년간 부부간의 관계에서 발생했던 부부간의 폭력 중 남편의 아내폭력을 측정

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 각자가 지각한 아내 폭력 즉 남편에게는 아내에게 사용한 신체, 정서, 언어, 경제, 성폭력에 답하도록 하였으며, 아내들에게는 자신이 남편에게 피해 입은 신체, 정서, 언어, 경제, 성폭력의 경험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총 5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likert 척도로 '전혀 없었다(1점)', '1년에 1-2번 정도(2점)', '6개월에 1-2번 정도(3점)', '3개월에 1-2번 정도(4점)', '1개월에 2-3번 정도(5점)', '거의 매일(6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유형별 점수가 높을수록 각 유형에 해당되는 폭력을 남편이 아내에게 행한 것으로 보며, 아내의 경우 각 유형의 폭력을 남편으로부터 실제 많이 경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체 폭력경험 관련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0, 정서 폭력은 .92, 경제 폭력은 .80, 언어 폭력은 .90, 성 폭력은 .79였으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7이었다.

3. 분석방법

연구 대상 부부들의 아내 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및 백분율을 실시하였으며, 부부들의 자아 존중감, 의사소통 유형, 부부 갈등,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경험, 알코올 지수와 부부가 보고한 아내 폭력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각 변인별 평균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변인마다 두 상하집단간 아내 폭력의 차이를 t-test로 알아보았다. 종속변인 아내폭력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중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통계의 산출은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II. 아내폭력 실태와 관련변인들

1. 연구대상자들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부부 132쌍으로 서산시 소재 중소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층화표집하여 선정하였다.

연구대상들의 특성은 앞 장의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연령은 남편의 경우 31세~40세가 53.8%, 41세~50세가 40.9%였고, 아내는 31세~40세가 62.9%,

<표 1> 조사대상 부부들의 특성 1 (N=132쌍)

내 용		남편 빈도(%)	아내 빈도(%)
연 령	21세~30세	4( 3.00)	18(13.60)
	31세~40세	71(53.80)	83(62.90)
	41세~50세	54(40.90)	30(22.70)
	51세 이상	3( 2.30)	1( 0.80)
학 령	중졸 이하	5( 3.80)	7( 5.30)
	고 졸	69(52.30)	80(60.60)
	대 졸	48(36.30)	38(28.80)
	대학원졸 이상 기 타	10( 7.60) 0( 0.00)	5( 3.80) 2( 1.50)
직 업	무직, 가정주부	1( 0.80)	108(81.80)
	군 인	3( 2.20)	0( 0.00)
	전 문 직	46(34.90)	7( 5.30)
	행 정 직	7( 5.30)	2( 1.50)
	사 무 직	19(14.40)	0( 0.00)
	판매, 서비스직	13( 9.80)	6( 4.60)
	근로 생산직	14(10.60)	0( 0.00)
	농림수산업	6( 4.60)	2( 1.50)
	자 영 업	19(14.40)	6( 4.50)
	기 타	3( 2.20)	1( 0.80)
	무 응 답	1( 0.80)	0( 0.00)
혼인 형태	기 혼	130(98.50)	
	동 거	1( 0.75)	
	재 혼	1( 0.75)	
소 득	100~199만원	19(14.40)	
	200~299만원	52(39.40)	
	300~399만원	39(29.50)	
	400~499만원	8( 6.10)	
	500만원 이상	14(10.60)	
결혼 기간	결혼직후~5년 이하	14(10.60)	
	6년이상~10년 이하	56(42.40)	
	11년이상~15년 이하	36(27.30)	
	16년이상~20년 이하	21(15.90)	
	20년 이상	5( 3.80)	
결혼 계기	중 매	24(18.20)	
	연 애	78(59.10)	
	중매 반 연애 반	30(22.70)	
자녀 수	없 음	5( 3.80)	
	1명	17(12.90)	
	2명	89(76.40)	
	3명	21(15.90)	

41세~50세가 22.7%로 응답자의 85% 이상이 31세~50세의 연령대였다. 학력은 남편은 고졸 이상이 96.2%, 아내는 고졸 이상이 93.2%로 고졸 이상의 학력자가 대부분이다.

직업은 남편의 경우 전문직 34.9%, 자영업과 사무직이 각각 14.4%였고, 아내의 경우 81.8%가 가정주부였다.

대상자 부부들은 98.5%가 기혼상태였으며, 가족의 월총수입은 남편의 기록을 참조하여 조사한 결과 200-299만원인 부부가 39.4%, 300만원~399만원인 부부가 29.5%, 500만원 이상인 부부가 10.6% 순이었다.

결혼기간은 6년 이상~10년 이하인 부부가 42.4%, 11년 이상~15년 이하가 27.3%로 전체 대상 부부들의 약 70%가 6년 이상~15년 이하의 부부들이었다. 결혼계기를 보면, 연애로 결혼한 부부가 59.1%, 중매 반연애 반이 22.7%였다. 자녀수는 2명의 자녀를 둔 부부가 전체의 67.4%, 3명을 둔 부부가 15.9%였다.

2. 아내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결과

1) 아내폭력의 실태

(1) 신체 폭력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 중 '신체 폭력'과 관련한 문항들과 관련 자료를 다음 <표 2>에 제시하였다. 신체 폭력 관련 전체 문항 중 많은 빈도를 보인 문항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표 2>를 보면, 아내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는 보고가 전체 문항에서 최저 84%부터 최고 98%에 이르고 있다. 1년에 1~2번 정도 신체적 폭력이 있었음을 보고한 부부들은 최저 2%부터 최고 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부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체적 폭력 방법은 '아

내에게 물건을 던졌다'로 1년에 1~2번 정도 사용한다는 부부들이 13%~14%였고, 그 다음은 1년에 1~2번 정도, '아내를 밀어버렸다'가 7%~11%, '손바닥으로 아내 얼굴이나 머리 때렸다'는 부부가 5%~8%, 발이나 주먹으로 한 두 대 아내를 때렸다가 7%, 칼이나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여 위협하였다가 2%~7%라고 부부들이 대답하였다. 칼이나 위험한 도구를 다룰 때 직접 사용한 부부들이 3%~4%, 핵대나 몽둥이를 사용하였다는 응답자 부부들도 2%~3%있었다. 그리고, 1%는 6개월에 1~2번 정도 핵대나 몽둥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신체폭력에 있어 남편과 부인간의 차이는 없었다.

(2) 언어 폭력

언어 폭력과 관련하여 빈도가 높은 문항들 중심으로 자료를 다음 <표 3>에 제시하였다. 아내에 대한 언어적 폭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큰 소리를 질렀다'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남편과 부인 모두 최저 60%~93%가 과거 1년 이내에 언어적 폭력이 전혀 없었다고 답하였다. <표 3>에 의하면, 연구대상 부부들이 가장 많이 보고한 언어폭력은 1년에 1~2번 정도 '큰 소리를 질렀다'(50%~46%)였고, 그 다음은 '아내가 하는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27%~40%)로 대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남들 앞에서 말로 창피를 준다'(21%~22%), '다른 여자와 비교하여 비난한다'(14%~21%), '무식하다고 한다'(16%~19%), '아내의 결점을 들추어내어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12%~14%) 순이었다. 아내에 대한 언어적 폭력 관련 문항 보고에 있어 남편과 아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내가 하는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의 문항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이 문항에서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더 많이 반응하였다(p<.05).

<표 2> 남편의 아내폭력 1(신체 폭력) (N=132쌍)

빈도	폭력내용	남편/아내		부부차이 검증결과
			%	
1년에 1~2회 정도	아내에게 물건 던짐	13/14		남편과 아내간 모든 문항 에서 차이 없음
	아내를 밀어버림	11/ 7		
	손바닥으로 얼굴이나 머리 때림	8/ 5		
	발이나 주먹으로 한 두 대 때림	7/ 7		
	칼이나 위험도구 사용하여 위협	7/ 2		
6개월에 1~2회 정도	칼이나 위험도구 직접 사용	4/ 3		
	핵대나 몽둥이 사용	2/ 1		
	핵대나 몽둥이 사용	1/ 2		

<표 3> 남편의 아내폭력 2(언어 폭력) (N=132쌍)

빈도	폭력내용	남편/아내		부부차이 검증결과
			%	
1년에 1~2회 정도	큰 소리 지름	50/46		아내 말에 무 반응 하다는 문항에서만 아내가 더 높 게 반응. 그 외는 부부간 차이없음.
	아내 말에 무반응	27/40		
	남들 앞에서 말로 창피주기	22/21		
	다른 여자와 비교하여 비난	21/14		
	무식하다고 말함	19/16		
	결점을 들추어내어 생활에 도움이 안된다고 함	14/12		



(3) 정서 폭력

정서 폭력 관련 문항에 관한 자료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의하면, 정서 폭력과 관련한 각 문항에서 '전혀 폭력이 없었다'고 보고한 부부들은 최저 36%~최고 96%의 범위를 보였다. 정서 폭력과 관련하여 대상 부부들이 가장 높은 빈도로 보고한 문항은 18번 '뿌루통한 태도로 아내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로 1년에 1~2번 정도가 33%~36%, 6개월에 1~2번 정도가 19%~22%였고, 그 다음은 29번 '아내의 고민이나 슬픔 등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았다'로 1년에 1~2번 정도라는 응답자가 36%~39%였으며, 그 다음으로 32번 '이유 없이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경우가 있었다'가 15%~29%, 4번 '남편의 생각에 따르도록 요구했다'가 27%~30%, 6번 남편의 감정에 일방적으로 맞추도록 요구했다'가 15%~22%로 부부들이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폭력에 관하여 대상 집단의 두드러진 특징은 아내에 대한 정서 폭력으로 남편들이 대꾸하지 않기, 무관심하기, 이유 없이 늦게 귀가하기 등의 소극적인 폭력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서폭력 관련 문항 중 2문항을 제외하고는 남편과 아내의 보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차이를 보인 2개의 문항은 '아내의 고민이나 슬픔 등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유 없이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경우가 있었다'로 두 문항 모두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빈도를 더 높게 보고하였다(p<.05).

<표 4> 남편의 아내폭력 3(정서 폭력) (N=132쌍)

빈도	폭력 내용	남편/아내	
		%	부부차이 검증결과
1년 1~2회 정도	뿌루통한 태도로 대꾸 안함	36/33	아내의 고민이나 슬픔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음
6개월 1~2회 정도	뿌루통한 태도로 대꾸 안함	22/19	이유 없이 늦은 시간에 귀가
1년 1~2회 정도	아내의 고민이나 슬픔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음	36/39	남편의 생각에 따르도록 요구함
	이유 없이 늦은 시간에 귀가	29/15	남편의 감정에 일방적으로 맞추도록 요구함
	남편의 생각에 따르도록 요구함	27/30	
	남편의 감정에 일방적으로 맞추도록 요구함	22/15	

(4) 경제 폭력

아내에 대한 경제 폭력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들의 71%~97%가 최근 1년 이내에 경제 폭력이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가장 높은 빈도의 경제 폭력 유형은 '아내에게 가정의 지출을 상세하게 보고하게 했다'로 남편들의 21%가 아내들의 13%가 1년에 1~2회 정도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은 1년에 1~2회 정도 '가정 경제에 무관심하다' (10%~11%), '아내가 여가선용 및 취미활동 하는 것을 경제사를 이유로 제한하였다' (8%~12%)였다. 그리고 남편과 부인 각기 4%가 '아내에게 일정액의 생활비만 준다'고 대답하였고, 아내들의 3%가 '남편들이 거의 매일 아내에게 가정을 수입을 알지 못하게 하고 손대지 못하게 한다'고 대답하였다. 경제 폭력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차이는 '남편(남편의 경우 본인인)이 가정경제에 무관심하다'는 50번 문항에서만 아내가 더 높게 보고하였고(p<.05), 그 외에는 차이가 없었다.

<표 5> 남편의 아내폭력 4(경제 폭력) (N=132쌍)

빈도	폭력 내용	남편/아내	
		%	부부차이 검증결과
1년에 1~2회 정도	아내에게 가정지출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함	21/13	남편이 가정 경제에 무관심하다는 문항에서 아내들이 더 높게 보고함. 그 외는 부부간 차이 없음.
	가정경제에 무관심함	10/11	
	아내가 여가선용 및 취미활동 하는 것을 경제사를 이유로 제한	12/ 8	
	아내에게 일정액의 생활비만 줌	4/ 4	
	가정수입을 아내가 알지 못하게 하고 손대지 못하게 함	2/ 3	

(5) 성 폭력

남편의 아내 폭력 중 성 폭력과 관련한 문항들의 조사 결과를 아래의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 의하면, 가장 높은 빈도로 보고된 문항은 '아내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했다'로 남편들의 29%가 1년에 1~2회 정도 그런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아내들은 24%가 1년에 1~2회, 3%는 6개월에 1~2회, 5%는 3개월에 1~2회 정도로 남편들의 보고보다는 좀 더 빈번한 강요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다음의 빈도는 1년에 1~2회 정도 '아내가 좋아하지 않는 체위로 성행위를 시도했다' (17%~25%), '아내가 싫어

〈표 6〉 남편의 아내폭력 5(성폭력) (N=132쌍)

빈도	폭력내용	남편/아내	부부차이 검증결과
		%	
1년 1~2회 정도	아내의 동의 없이 성관계 강요	29/24	모든 문항 에서 부부 차이 없음
6개월에 1~2회 정도	성생활에 남편이 관심 보이지 않음	11/ 9	
1년에 1~2회 정도	아내가 좋아하지 않는 채워로 싫어하는 성행위 시도	25/17	
	아내가 싫어할 때 성행위 강요	17/12	
6개월 1~2회 정도	아내가 싫어할 때 성행위 강요	5/ 5	

할 때 성행위를 강요했다'(12%~17%)였는데, 6개월에 1~2회 정도 강요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도 남편과 아내 각각 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개월에 1~2회 정도 '성생활에 남편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고한 남편이 11%, 아내가 9%였다. 성폭력과 관련한 모든 문항에서 남편과 아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6) 아내폭력 관련 기타사항

질문지 자료를 토대로 아내폭력과 관련된 기타 정보들을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의 실제 아내 구타에 관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결혼전후 구타시기에 관하여 남편과 아내 모두 77%는 구타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23%는 있다고 대답하였다. 구타시기가 '결혼 후 2년 이후부터'라는 대답이 남편 6%, 아내 8%, '결혼 후 1년 이내'라고 응답한 남편이 전체의 6%, 아내가 전체의 6%였다. 아내 구타의 이유로는 '사소한 일'이라는 보고가 남편 14%, 아내 13%로 가장 많았고 남편들의 8%와 아내들 3%가 남편의 '음주'가 그 원인이라는 대답을 하였다. 아내 구타 후 남편들은 자신들이 말없이 행동으로만 미안함을 표현하였다는 응답자가 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사과를 글로 표현하였다가 11%, 말로 사과하였다가 3%,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가 3%였다. 아내들의 40%가 구타당한 후 구타를 피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7%가 남편의 감정을 진정시키려고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표 7〉 아내폭력 관련 기타사항 (N=132쌍)

범주	내용	남편/아내
		%
결혼 전후 구타 여부	없 음	77/77
	있 음	23/23
구타 이유	사소한 이유	14/13
	음 주	8/ 3
처음 구타시기	결혼 후 2년 이후	6/ 8
	결혼 후 1년 이내	6/ 6
구타 이후 아내 행동	구타를 피하기	19/40
	말로 대응하기	9/ 0
	남편 진정시키기	3/ 7
구타 이후 남편 행동	말없이 미안해함	28/11
	사과를 글로 표현	11/ 5
	말로 사과하기	3/ 3
	무 반응	3/ 3
폭력 빈도 범위	신체폭력	1-15/3-15
	언어폭력	6-52/5-49
	정서폭력	3-63/5-45
	경제폭력	2-28/4-24
	성 폭력	5-37/5-25

연구결과 부부들은 폭력발생시 주변인이나 친척에게 알리거나 신고를 하거나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거나 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보다는 회피나 외면, 말없음 등의 소극적인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서와 같이 폭력의 빈도 범위는 신체적 폭력이 그 이외의 다른 폭력에 비하여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와 언어폭력이 전반적으로 다른 폭력의 범주에 비해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평균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차이

독립변인인 자아존중감, 부부의 의사소통, 부부갈등,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경험, 알코올 지수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남편과 부인을 각각 상하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간 아내폭력의 차이를 t-test로 알아보았다. 종속변인 아내폭력은 남편의 경우 남편이 보고한 아내폭력의 전영역을 총합하여 산출하였고, 아내의 자료는 아내가 보고한 아내폭력을 총합하여 산출하였다. t-test의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다음의 〈표 8〉에서와 같이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상

하집단을 나누어 남편과 아내가 보고한 아내폭력의 집단간 차이를 알아본 결과 부부 모두 상하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들은 부부갈등,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경험, 알코올이었다. 즉, 부부갈등( $p<.001$ )과 원

〈표 8〉 관련변인 상위집단과 하위집단간 아내폭력의 차이 (N=132쌍)

독립변인	성별	상하 집단	N	M(SD)	t값
자아 존중감	남	하상	89	65.75(32.04)	.42
	여	하상	43	63.53(19.59)	
의사소통 유형특성 (회유형)	남	하상	92	62.80(15.87)	-1.90*
	여	하상	40	76.78(66.06)	
비난형	남	하상	65	68.25(38.32)	1.28
	여	하상	67	61.91(13.08)	
초이성형	남	하상	84	62.63(20.83)	-1.73
	여	하상	48	74.75(57.99)	
산만형	남	하상	70	60.39(16.05)	-2.01*
	여	하상	62	70.27(37.47)	
일치형	남	하상	84	61.33(12.26)	-1.74
	여	하상	48	71.50(44.00)	
부부갈등	남	하상	81	60.86(16.00)	-2.14*
	여	하상	51	71.65(40.62)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경험	남	하상	90	63.16(20.63)	-1.69
	여	하상	42	75.36(61.76)	
알코올	남	하상	70	64.94(37.00)	-.04
	여	하상	62	65.13(14.11)	
부부갈등	남	하상	79	60.72(19.26)	-2.31*
	여	하상	53	76.45(55.77)	
일치형	남	하상	75	61.63(12.03)	-1.58
	여	하상	57	69.51(40.95)	
부부갈등	남	하상	67	66.60(24.79)	-.13
	여	하상	65	67.49(49.68)	
부부갈등	남	하상	71	57.52(14.94)	-3.39***
	여	하상	61	73.77(37.04)	
부부갈등	남	하상	79	55.72(6.80)	-7.02***
	여	하상	52	76.87(25.49)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경험	남	하상	95	61.57(16.89)	-2.27*
	여	하상	37	73.92(45.87)	
알코올	남	하상	97	62.11(19.95)	-2.47*
	여	하상	35	80.69(66.75)	
알코올	남	하상	91	61.21(16.32)	-2.33*
	여	하상	41	73.51(44.26)	
알코올	남	하상	103	61.79(15.41)	-3.00*
	여	하상	29	85.69(75.92)	

$p<.05^*$ ,  $p<.01^{**}$ ,  $p<.001^{***}$

가족으로부터의 폭력경험( $p<.05$ ), 그리고 알코올 지수의 점수( $p<.05$ )가 높은 남편과 아내의 집단이 점수가 낮은 집단보다 아내폭력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표 8〉에 의하면, 남편 상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스트레스 상황시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속하는 비난형과 초이성형의 점수가 높은 남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아내폭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상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는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유형 중 점수에 따른 집단의 차이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내 집단과 산만형의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아내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아내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이것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회유형과 일치형의 점수가 높고 낮은 상하 집단간에는 남편과 아내 상하집단 모두 아내폭력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남편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상하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남편)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각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남편의 자료는 〈표 9〉에, 아내의 자료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위의 〈표 9〉에 의하면, 남편들의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독립변인들을 회귀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9〉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남편) (N=132쌍)

	1	2	3	4	5
1	1.0				
2	.19*	1.0			
3	-.07	.44**	1.0		
4	.12	.15	.15	1.0	
5	-.18	.01	.26**	.16	1.0

$p<.05^*$ ,  $p<.01^{**}$ ,  $p<.001^{***}$

1. 자아존중감 2. 의사소통 유형특성 3. 부부갈등  
4.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경험 5. 알코올

(2)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부인)

다섯 개의 독립변인들은 모두 아내폭력과 관련된 관련변인들로 선행연구에서 각기 논의되어 왔고 함께 그 영향력을 알아본 연구는 찾지 못하여, 어느 것을 회귀식에서 제외할 것인가의 여부는 문헌연구 보고로는 결정할 수 없었으며, 통계적인 회귀분석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음의 <표 10>에서 0속에 묶은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유형은 다른 독립변인들과 .61에서 .81까지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으므로 아내들 자료의 회귀분석시 제외하였다.

<표 10>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부인) (N=132쌍)

	1	2	3	4	5
1	1.0				
2	.81**	1.0			
3	.67**	.64**	1.0		
4	.68**	.61**	.53**	1.0	
5	.30**	.32**	.33**	.17**	1.0

p<.05\*, p<.01\*\*, p<.001\*\*\*

- 1. 자아존중감 2. 의사소통 유형특성
- 3. 부부갈등 4.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경험
- 5. 알코올

4) 아내폭력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

아내폭력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의 자료를 각기 단계적 회귀분석 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를 남편의 자료는 <표 11>에, 아내의 자료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1>에서와 같이 남편들의 자료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경험, 알코올, 스트레스 상황시의 의사소통 유형이 남편이 보고한 아내폭력을 4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에 의하면, 특히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독립변인은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경험이었고, 아내폭력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력은 35%로 남편들에게 있어 원가족으로부터 받은 직간접 폭력경험이 아내들에 대한 폭력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임을 나타내준다. 투입된 독립변인 중 자아존중감과 부부갈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이 없었다.

<표 11> 아내폭력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남편)

(N=132)

독립변인	아내 폭력		
	b	B	R <sup>2</sup> Ch
원가족 폭력경험	2.205	.549***	.35
알코올	1.506	.185*	.03
의사소통 유형 특성	.228	.150*	.02
자아존중감		-.047	
부부갈등		.056	
상 수	-21.796		
R <sup>2</sup>	.40*		
Dubin-Watson계수	2.094		

p<.05\*, p<.01\*\*, p<.001\*\*\*

아내들의 자료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다음의 <표 12>를 보면, 아내들이 지각한 부부갈등,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경험, 의사소통 유형이 아내들이 보고한 아내폭력을 77%설명하였으며, 유의하였다. 특히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은 남편의 경우와 달리 부부갈등이었고, 개별적인 설명력은 70%였다.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경험은 7%의 설명력을 보였는데, 남편들의 경우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경험의 설명력이 35%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지만, 원가족으로부터의 직간접 폭력경험이 부부들이 보고한 아내폭력에 모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의사소통 유형과 알코올은 남편의 경우와 달리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다.

<표 12> 아내폭력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아내)

(N=132)

독립변인	아내 폭력		
	b	B	R <sup>2</sup> Ch
부부갈등	.794	.674***	.70
원가족 폭력경험	1.842	.305***	.07
알코올		.053	
상 수	-15.500		
R <sup>2</sup>	.77***		
Dubin-Watson계수	2.356		

p<.05\*, p<.01\*\*, p<.001\*\*\*

## IV. 결론 및 제언

### 1. 연구 결과 요약

조사연구에서 얻어진 중요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내폭력을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으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신체적 폭력보다는 그 외의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부부조사 결과 나타났고, 구타 후 남편과 아내의 대처방식이 적극적인 사과나 방어 혹은 제지보다는 소극적인 방법으로서 해결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자존감의 점수가 높은 아내의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아내폭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유형을 제외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스트레스 상황시 많이 사용하는 부부들이 적게 사용하는 부부들보다 아내폭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부부갈등이 높고,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한 부부들이 그렇지 않은 부부들보다 아내폭력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알코올의 섭취량과 빈도가 많은 부부들이 그렇지 않은 부부들보다 아내폭력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셋째, 여러 독립변인들 중 남편들의 경우엔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경험, 알코올, 의사소통 유형이 남편이 보고한 아내폭력을 40% 설명하였으며, 그 중 특히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경험이 3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들의 경우 알코올, 의사소통 유형은 유의한 설명력이 없었던 반면, 부부갈등과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경험이 77%의 아내폭력에 대한 설명력을 보였다. 특히 부부갈등은 70%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남편들의 자료와 대조를 보이며,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경험은 남편의 경우 35%를, 아내의 경우 7%로 설명력의 차이는 크지만, 아내폭력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제한점

본 연구는 서산지역의 중소 아파트의 부부들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한 연구였으므로 그 이외 지역으로 연구 결과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또

한, 연구대상자들의 85% 이상이 30대~50대의 연령대였으므로 20대와 60대 이상의 부부들에게 연구 결과를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아내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일반 부부들의 아내 폭력 실태를 파악한 것이므로 가해자나 피해자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보고된 연구 결과들과도 동일한 결과 해석을 할 수 없다. 또한 독립변인으로 다룬 의사소통 유형이 스트레스 상황시를 고려한 의사소통 유형이나, 실제 여러 연구들에서 아내 폭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스트레스를 직접적인 독립변인으로 다루지 않은 점도 이 연구 결과 해석의 제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논의

결혼 전후 아내를 구타한 사실이 있다고 남편과 부인의 23%가 답변하였는데, 여러 선행연구들(김재업, 1998; 김정옥, 1985; 전형미, 198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에서 보고한 28.4%~61.3%의 수치보다 낮다. 또한, 연구 대상자 부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체적 폭력 방법은 '아내에게 물건을 던졌다'로 1년에 1-2번 정도 사용한다는 부부들이 13%~14%였고, 그 다음은 1년에 1-2번 정도 '아내를 밀어버렸다'가 7%~11%, '손바닥으로 아내 얼굴이나 머리를 때렸다'는 부부가 5%~8%, 발이나 주먹으로 한 두 대 아내를 때렸다가 7%, 칼이나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여 위협하였다가 2%~7% 등으로 한국가정폭력상담소 춘천지부의 결과보고(2000)보다는 폭력의 수위나 빈도 면에서 약하고 적었는데, 이러한 이유는 본 연구대상자들의 무응답 빈도가 높았던 점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가 아니라 일반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점 등을 들 수 있고, 가장 큰 원인으로 본 연구에서 아내폭력의 영역을 신체폭력, 언어폭력, 정서폭력, 경제폭력, 성폭력으로 세분화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체적 폭력이 낮게 보고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신체폭력이 과거 1년 이내에 한 번도 없었다는 대답이 신체폭력 관련 문항들에서 최저 84%~98%인 반면, 언어폭력의 경우는 60%~93%, 정서폭력은 36%~96%, 경제폭력은 71%~97%, 성폭력은 62%~96% 등으로 오히려 신체폭력보다는 그 이외의 언어, 정서, 경제, 성폭력 보고 비율이 더 높다는 것

이 이를 말해주며, 신체폭력을 경험하는 부부보다 비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부부가 더 다수였다고 보고한 정서영의 보고(1995)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도 아내폭력의 영역을 다차원으로 세분하여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아내폭력 이후 아내와 남편의 대처방식이 대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달래거나 미안해하거나 말없이 넘어가거나 하는 등의 소극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민자, 엄선필의 연구(2002)와 한국가정폭력상담소 춘천지부의 연구(2000)결과와 유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들을 독립변인의 점수를 기준으로 상하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간의 아내폭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그 중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내 집단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내 집단보다 아내 폭력의 빈도가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p < .05$ ). 이러한 결과는 아내의 자아존중감과 남편의 구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김광일과 문경서의 연구결과(1994)와 반대되며, 그 외 남편구타와 아내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여러 연구 결과들(김광일, 1985; 박재신, 1992; Ball & Wyman, 1978; Hilbermann, 1980)과도 반대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생각건대, 본 연구의 자료 결과는 일반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오랜 피해 경험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아진 피해자들처럼 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을 덜 겪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을 존중하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내일수록 남편으로부터 여러 차원의 폭력을 경험할 때 더 그러한 폭력을 깊이 기억하며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비난형과 초이성형의 점수가 높은 남편집단과 산만형 점수가 높은 부인 집단이 낮은 집단들보다 아내 폭력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편이 산만형일수록 아내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많이 사용하며, 아내가 비난형일수록 남편에게 심리적 공격을 많이 한다고 보고한 김득성, 김정옥, 송정아의 연구(2000)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며, 아내 폭력이 대부분 가족 간의 상호역동에서 적절하지 않은 역기능적인 대처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말한 Satir의 견해도 연결된다.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아내폭력과의

정적 상관관계 보고는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계획시 의사소통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회유형과 일치형의 점수에 따라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는데, 특히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속하는 회유형과 관련하여 더 많은 연구보고가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부부갈등의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부부 갈등의 평균 점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아내 폭력의 빈도를 더 높게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이 모두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갈등의 수준이 높을 때 남성우위형의 경우 여성 우위형이나 평등형보다 폭력적 반응면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는 김재엽의 연구결과(1998)와 가정 폭력이 부부 갈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Mckenry 등(1995)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남편과 아내들 모두 자기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 경험 및 폭력 목격 경험의 빈도가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아내 폭력의 빈도가 높았으며 의미가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여러 선행연구 결과들(공미혜, 1993; 김광일, 1992; 안영희, 1998; 손정영, 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허남순, 1993; Scott, 1974; Straus, 1978; Walker, 1978; Hiberman, 1980)과 일치한다. 위의 결과들을 볼 때 폭력의 세대간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관련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남편과 아내 모두 알코올 지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할 때 알코올 지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아내 폭력 빈도가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Straus의 연구결과(김재엽, 1998 재이용)와 일치한다. 위의 결과와 관련하여서는 알코올 섭취시 폭력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바른 음주문화 캠페인이나 이와 관련한 예방차원에서의 청소년 음주 교육 프로그램, 아내 폭력 가해자들에게 알코올 관련 체계적인 심리치료 제공, 알코올 중독자 자조 모임의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생각해보게 한다.

독립변인들인 부부갈등,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 경험, 알코올, 스트레스 상황시의 의사소통 유형의 아내 폭력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총체적인 고찰을 한 관련 선행연구를 찾지 못하여 본 연구결과 논의가 어렵지만,

남편의 아내폭력에 대하여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이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경험이었고, 아내들의 경우 유의한 영향력을 갖고는 있으나,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모델로부터 학습되어진 행동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보아지는 사회적 상황에서 강화되어지며, 여성들의 경우 이 모델링 효과는 사회적으로 학습되어진 억제 요인에 의해 폭력을 덜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본 Campbell과 Humphrey(198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성들에게 폭력사용이 덜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아내의 자료에서만 유의한 설명력을 보인 부부갈등의 경우는 이 연구에서 부부갈등에 있어 남편과 아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특히 부부갈등의 총점과 자기의 원가족, 배우자의 원가족과의 관계로 인한 부부갈등에 있어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부부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과 정문자, 이종원(2003)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고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교육 프로그램 시행시 부부갈등 관련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넣어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 4. 결론

부부폭력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부부폭력의 발생 원인을 정신의학적 요인, 사회 심리적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 그리고 여권주의적 요인의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김재열 외, 1999), 이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부부폭력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부부폭력의 원인 설명에 적절하다고 본다(정현숙, 유계숙, 2004).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부부폭력의 대부분이 아내에 대한 아내폭력이라는 점에서 볼 때 아내폭력을 주제로 한 이 연구에도 부부폭력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위의 여러 이론들 중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 부부폭력을 설명한 사회학습이론과 역할모델 이론 그리고 부부갈등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사회학습이론과 역할모델 이론에서는 성장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관찰 학습한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부부폭력의 가해자로 폭력이 세대간에 전달된다고 보았는데, 이 연구에서도 원가족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폭력을 경험한 부부들이 아내폭력을 더 많이 보고하였고, 이 변인이 남편의 경우 35%, 아내의 경우 7%의 설명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부갈등이 부인이 보고한 아내폭력의 70%를 설명한 결과는 부부가 서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주도권 다툼을 벌인다는 배우자간의 태도, 가치관, 성격 등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부부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그 갈등의 산물로서 폭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던 갈등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심리적 요인 이외에도 위에서 열거한 다른 요인들을 모두 고려할 때 효과적이고도 총체적인 아내폭력의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해자나 피해자의 생물학적·정신적인 결함을 주원인으로 본 정신의학적 요인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인 요소들 중 아내폭력과 결부되는 요인들을 찾아 폭력이 방지 또는 근절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단위이며, 최소단위인 미시체계이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회와 영향력을 주고받으므로, 사회구조적·문화적 측면에서도 아내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가부장적인 문화와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여성들의 상황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주의적 요인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아내 폭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던 자아 존중감, 의사소통 유형, 부부 갈등, 원가족으로부터의 직간접 폭력 경험, 알코올 등의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인인 아내 폭력과의 관계 및 실태를 기초통계 산출, 각각의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각 변인들마다 평균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차이 비교,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 등을 알아보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결과 제시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로 상담소 내의 상담 자료로만 유추해 왔던 서산 지역의 아내 폭력 관련 실태를 실제적으로 파악하게 되었고, 아내 폭력의 예방, 근절 및 부부 관계 증진을 위해서 상담과 부부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어떠한 접근 방법을 시도하고 관

런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지를 정하는데 폭넓고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내들의 자아 존중감 향상과 부부들의 여러 영역에서의 부부 갈등 해소 프로그램, 부부들의 의사소통을 일치형의 의사소통이 되도록 돕는 프로그램, 부모자녀관계에서의 폭력의 세대간 전이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의 모색과 예방 프로그램, 아내 폭력으로 연결되지 않는 건전한 음주문화 만들기와의 연관된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접근과 관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였다고 보며,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련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하여,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내폭력과 관련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관련 법규들이 피해자들의 실생활에 효과적인 보호장치로서, 가해자 재발의 적극적인 차단장치로서, 피해자의 자활매개체로서 기능하도록 수정·보완되기를 바라며, 상담과 부부교육에의 정책적인 지원과 이혼 이전의 부부상담 의무화 실시 등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공미혜(1993).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 여성문제 공개토론회 자료집. 이형자씨 무죄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6-11.
- 김광일(1985).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조사. 정신건강연구, 3, 218-234.
- 김광일(1992). 구타당하는 아내의 정신의학적 연구. 가정폭력-그 실상과 대책. 서울: 탐구당.
- 김광일(1994).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및 자아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편. 여성연구, 봄호.
- 김득성, 김정옥, 송정아(2000).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폭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16.
- 김병수(1999).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아내학대의 인식과 경험.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1998). 한국 가정폭력 실태와 사회계층 변인과 의 관계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
- 김재엽(1998). 한국인의 스트레스와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학회지, 10(2).
- 김재엽(1998). 한국인의 음주와 가정폭력: 부부폭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6(2), 177-198.
- 박재신(1992). 가정내 폭력과 일상생활. 서울: 등불.
- 서산 가정폭력상담소(2000). 서산지역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통계.
- 손정영(1998). 아내학대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 송정아(2000).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Satir 가족치료, 한국기독교상담 심리치료학회, 기독교상담학회지, 81-104.
- 안영희(1998). 기혼남녀의 부부폭력 경험과 경험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희정(1999). 비행청소년 및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행동특성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병제(1974).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
- 전형미(1989). 남편의 스트레스가 아내학대에 미치는 영향.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문자, 이종원(2003). 원가족변인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3), 147-164.
- 정민자, 엄선필(2002). 가정폭력피해자들의 결혼과 결혼지속과정에 관한 생애과정적 사례연구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이용경험이 있는 여성피해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49-61.
- 정서영(1995). 부부간의 심리적·신체적 학대, 대처양식과 개인의 적응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 유계숙(2004). 가족관계. 서울: 도서출판 신정. 474-475.
- 최규련(1994).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한경혜, 김영희(1999).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실태와 관련요인 -개인과 가족관련



- 특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2), 27-39.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춘천지부(2000). 가정폭력관련상담원교육.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한미향(1999). 부부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방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남순(1993). 아내구타에 대한 대책 및 치료기법에 관한 연구. 한림대 사회복지연구소편. 비교사회복지, 2, 277-320.
- Ball, P., & Wyman E. (1978). Battered wives and powerlessness. *Victimology*, 2, 542-552.
- Belsky, J. (1980). Child maltreatment: An ecological integration. *American Psychologist*, 35, 320-335.
- Campbell, J., & J. Humphrey (1984). *Nursing Care of Victims of Family Violence*. Virginia: Reston Publishing Company.
- Hiberman, E. (1980). The Wife-beater's wife reconsidere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7, 1336-1347.
- Infante, D. A., Chandler, T. A., & Rudd, J. E. (1989). Test of an argumentative skill deficiency model of interspousal violence. *Communication Monographs*, 86, 163- 177.
- Mckenry, P. C., Julian, T. W., & Gavazzi, S. M. (1995). Toward a bio-psychosocial model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307-32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tir, V. (1978). *Your Many Faces*. Millbrae, CA: Celestial Arts.
- Scott, P. (1974). Battered wive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9, 433-441.
- Shin, H. L. (1995). Violence and intimacy: Risk makers and predictors of wife abuse among Korean immigra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Stith, S. M., Rosen, K. H., Middleton, K. A., Busch, A. L., Lundeberg, K., & Carlton, R. P. (2000).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pouse abuse: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62, 640-654.
- Straus, M. (1978). Wife beating. *Vicimology*, 2, 443-458.
- Tontodonato, P., & Crew, B. K. (1992). Dating violence, social learning theory, and gender: A multivariate analysis. *Violence & Victims*, 7, 3-14.
- Walker, L. (1978). *The Battered woman*. New York: Harper & Row.

(2005년 5월 30일 접수, 2005년 7월 1일 채택)

〈부 록〉

\*\* 의사소통 유형 특성 척도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1. 나는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고, 남들도 나를 걱정해 주지 않는 것 같다.
2. 나는 나와 대화하는 사람의 기분에 맞추려고 하는 편이다.
3. 나는 무뚝뚝하다는 말을 듣는 편이다.
4. 나는 남의 주장이 나의 생각과 달라도 맞장구를 쳐 주는 편이다.
5. 남들은 내가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정확하게 답하는 것을 피한다고 말한다.
6. 나는 반대 의견을 잘 말하지 않는 편이다.
7. 나는 이야기 할 때 상대방의 실수나 결정을 잘 찾아 내서 말하는 편이다.
8. 나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할 때가 많으며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편이다.
9. 나는 내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말하며 행동하는 편이다.
10. 나는 지나치게 겸손한 경향이 있다.
11. 나는 힘이 있고 강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12.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관계가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13. 나는 화난 모습을 보여주지 싫어하며, 기분이 나빠도 안 나쁜 척 하는 편이다.
14. 나는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한 후에도 상대방의 반응에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다.
15. 나는 생각이 자주 바뀌는 편이고, 대화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대화에 집중하기 힘들게 하는 편이라고 한다.
16.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잘 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다.
17. 나는 내가 말하는 내용을 듣는 사람이 이해 못해도 상관하지 않는 편이다.
18. 남들은 내가 일관성 없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19. 나는 무슨 일이든지 되도록이면 먼저 사과한다.
20. 나는 그 상황을 벗어나거나 숨기기 위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
21. 나는 불평불만이 많은 편이다.
22. 나는 미리 생각해 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말하는 편이다.
23. 나는 남에게 욕하거나 비난을 하지 못한다.
24. 나는 내가 때로는 가치 없게 느껴지고 쓸모없는 존재 같다.
25. 다른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하는 편이다.
26. 나는 어떤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 내 책임으로 돌린다.
27. 나는 현명하고 침착해 보이고 싶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편이다.
28. 나는 거절을 잘 못하는 편이다.
29. 나는 윗사람이 꾸중을 하면 화가 나서 일일이 말대꾸를 한다.
30. 나는 남이 나에게 충고하려고 하면 그의 결점을 찾아내서 공격하는 편이다.
31.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고, 남들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다.
32. 나는 다른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어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33. 나는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상관없이, 할 수 없는 일은 못한다고 거절한다.
34. 나는 화가 나도 참고 삭이는 편이다.
35. 나는 말싸움을 해서 모욕을 당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반격한다.
36. 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자제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37.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화를 낼 때가 있다.
38. 나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공격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39. 남들은 내 목소리가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으며, 날카롭고 큰 편이라고 한다.
40.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편이다.
41. 나는 까다로운 일을 결정하기를 귀찮아한다.
42. 나는 비판하고 분석하며 평가를 잘 하는 편이다.
43. 나는 나 자신의 유일성을 존중한다.

- 44. 나는 지나치게 세심하고 실수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 45.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편안하고 정직하다.
- 46.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말을 듣는 편이다.
- 47.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잘 알며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 48. 나는 겉으로는 냉정하며 침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약하여 감정적으로 상처를 잘 받는 편이다.
- 49.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도 그 행위를 평가하고 방향제시를 할 수 있다.
- 50.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고독감을 느낀다.
- 51.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뜻과 의미는 동일하고 직접적이다.
- 52.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음성을 따뜻하게 하고 상대방의 눈을 주로 바라보는 편이다.
- 53. 나는 자유롭게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
- 54. 나는 나와 타인의 변화에 융통성이 있고 개방적이다.
- 55. 나는 내면적으로 무엇에겐 진실하고, 개방적이다.

**\*\*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 경험 척도 \*\***

(전혀 없었다 1점, 1년에 1-2회 이상 2점, 6개월에 1-2회 이상 3점, 3개월에 1-2회 이상 4점, 1개월에 2-3회 이상 5점, 거의 매일 있었다 6점)

- 1. 당신은 어렸을 때나 성장기 때 당신의 한 쪽 부모(아버지가 어머니를 또는 어머니가 아버지를)가 다른 쪽 부모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
- 2. 당신은 어렸을 때나 성장기 때 당신의 한 쪽 부모(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가 다른 쪽 부모에게 언어적, 정서적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의견무시, 비난, 헐박,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주기, 욕설 등)
- 3. 당신은 어렸을 때나 성장기 때 당신의 한 쪽 부모(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가 다른 쪽 부모에게 경제적 폭력(돈과 관련한 실행)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수입을 모르게 하기, 최소한의 비용만 주기, 돈을 타서 쓰게 하기, 돈 쓴 내역 일일이 보고하게 하기, 자동차나 주택 구입 등을 혼자 결정하기 등등)
- 4. 당신은 어렸을 때나 성장기 때 당신의 부모로부터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5. 당신은 어렸을 때나 성장기 때 당신의 부모로부터 언어적,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의견무시, 비난, 헐박,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주기, 욕설 등)
- 6. 당신은 어렸을 때나 성장기 때 당신의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부모 거역시 용돈 지급 중단, 교육비 지원 중단 등등)
- 7. 당신은 어렸을 때나 성장기 때 당신의 부모 이외의 다른 가족원(예를 들면, 언니, 오빠, 형, 삼촌, 조부모 등)으로부터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